

김지하 시인이 수묵시화집 《절, 그 언저리》(창작과비평사)를 냈다. 사상가이며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등 우리 사회 변혁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가 수묵시화집을 낸 것은 그리 낯설지 않다. 시인의 표현대로 흑백화는 '흰그늘'인 탓이다. 앙드레 말로의 얘기처럼 '세계의 우울'이 수묵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. 5월 8일, 석가탄신일을 맞아 2년여 절 언저리를 돌며 시상과 수묵화를 변주해 낸 김 시인의 시와 수묵의 세계로 초대한다.

《절, 그 언저리》 김지하 글·그림 | 창작과비평사 | 124쪽 | 값 18,000원

靑蓮庵

내가
못을 곳 왔다

한 스님
어두운 몸의 문
문을 여니

푸른 연꽃 문신의
한 회상이 스러지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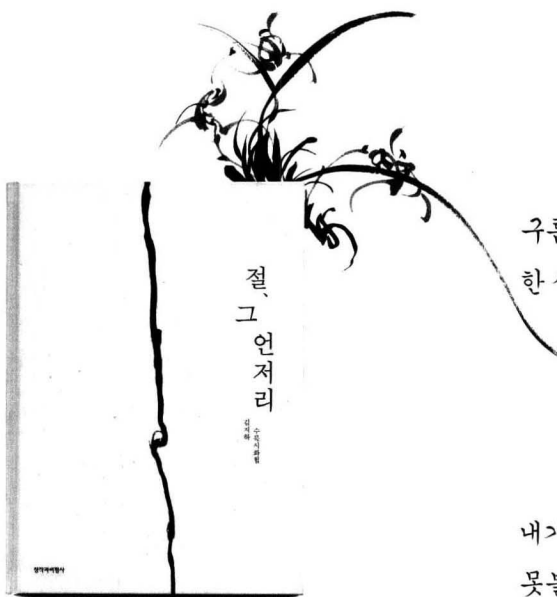
청기와 밑
알매 부연
모두어 스러 안고

허공 오르매
허공 떨어매

구름 무늬 연듯빛 새의 머리
한 시절이 동터오고

神仙 가라
神仙 오라

내가 차마
못볼 것 봤다.



독자를 산사山寺로 이끄는 열 권의 책.

《산사》이형권 지음 | 고래실 | 356쪽 | 값 18,000원 《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》(보급판) 최순우 지음 | 학교재 | 414쪽 | 값 9,500원 《바닷가에 절이 있었네》박원식 지음 | 교묘아침 | 320쪽 | 값 9,500원
《암자로 가는 길》정찬주 지음 | 김홍희 사진 | 좋은날 | 320쪽 | 값 12,000원 《적멸보궁 가는 길》이산하 지음 | 이룸 | 214쪽 | 값 12,000원 《우리산 옛절》김장호 지음 | 대원정사 | 304쪽 | 값 7,500원 《청산에 묻힌 보궁을 찾아》박명자 지음 | 증명 | 222쪽 | 값 7,000원 《한국의 가람》홍윤식 지음 | 민족사 | 498쪽 | 값 15,000원
《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》김미성 지음 | 떠앗 | 232쪽 | 값 7,000원 《산사의 미를 찾아서》박보하 지음 | 다룬세상 | 246쪽 | 값 13,000원 《무연가 찾아올 때》하종오 지음 | 창작과비평사 | 128쪽 | 값 5,000원